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! 새로운 국민의 나라

보도시점 2023. 7. 4.(화) 11:00 < 7.4.(화) 석간 > 배포 2023. 7. 3.(월)

2023년 상반기 외국인 직접투자, 역대 최대 신고금액 달성

- 신고금액 170.9억 달러(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+54%)로 사상 최대 규모

2023년 상반기 외국인 직접투자는 신고 기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4% 증가한 170.9억 달러로, 기존 최대 규모인 2018년 상반기 실적(157.5억 달러)을 경신한 사상 최대 금액이다. 이로써 2022년 3분기 이후 4분기 연속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신고금액을 달성하게 되었다. 도착 기준으로는 6% 증가한 77.5억 달러를 기록하였다.

* 상반기 외국인 직접투자 신고금액 : ('18. 상) 157.5억 달러 → ('19. 상) 98.7억 달러 → ('20. 상) 76.6억 달러 → ('21. 상) 131.4억 달러 → ('22. 상) 110.9억 달러

【업종별】 제조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6% 증가한 76.3억 달러, 서비스업은 11% 증가한 84.8억 달러를 기록하였다. 제조업에서는 전기·전자(+663.0%), 화공(+464.1%), 의약(+78.3%) 등의 업종이 증가하였고, 서비스업에서는 사업지원·임대(+447.3%), 숙박·음식(+250.6%), 금융·보험(+185.5%) 등이 증가하였다.

【국가별】 미국발 투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% 증가한 36.6억 달러, 유럽연합(EU)은 145% 증가한 42.6억 달러, 중화권은 33% 증가한 32.5억 달러, 일본은 33% 감소한 6.0억 달러를 기록하였다. 미국과 유럽연합(EU)에서 반도체·이차전지·바이오 등 첨단 제조업과 수소·해상풍력 등 에너지 신산업 분야의 투자가 확대되었다.

【유형별】 공장 또는 사업장을 신·증설하여 이를 직접 운영하기 위한 그린필드 투자는 126.4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3% 증가하였고, 기업 지분 인수 또는 합병 등의 목적의 인수합병(M&A) 투자는 44.5억 달러로 57% 증가하였다.

【평가】 이번 최대 실적 달성에는 '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'으로서 ▲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통한 투자유치 성과가 크게 기여*하였으며, ▲민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세제 개편 등 강력한 정부 지원책과 ▲국제표준(글로벌 스탠다드)에 부합하는 규제 혁신 등 기업 친화적인 정책도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.

* 대통령 해외 순방에서 유치한 성과(총 31.4억 달러)가 전체 신고금액의 약 18% 차지

또한, 외국인 투자 기업들이 우리나라의 견고한 제조업 기반, 우수한 기술력과 전문인력 등을 높이 평가하는 등 첨단산업의 전략적 투자 거점으로서 한국의 매력이 상승하고 있는 점도 투자유치에 긍정적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.

담당 부서	투자정책관 투자유치과	책임자	과 장	남명우 (044-203-4080)
		담당자	사무관	전종형 (044-203-4089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첨 부 **2023년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 상세 동향**

○ 본 동향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외국인직접투자통계시스템(INSC)과 (사)외국인직접투자연구센터,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(KOTRA)의 자료를 바탕으로 2023년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 동향을 분석한 자료입니다.

* 업종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(KSIC) 및 외국인직접투자통계시스템(INSC)을 따름

○ 본 자료는 2023년 6월 30일까지의 잠정적 실적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, 일부 수치는 추후 변경이 가능합니다.

○ 산업통상자원부의 외국인직접투자 동향은 매 분기 발표되며, 2023년 3분기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자료는 2023년 10월 초에 발표될 예정입니다.

Ⅰ. 총괄

□ (실적) '23년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는 역대 최대인 170.9억불 달성

○ (금액) 신고 170.9억불(전년동기比 +54.2%), 도착 77.5억불(+6.3%) 기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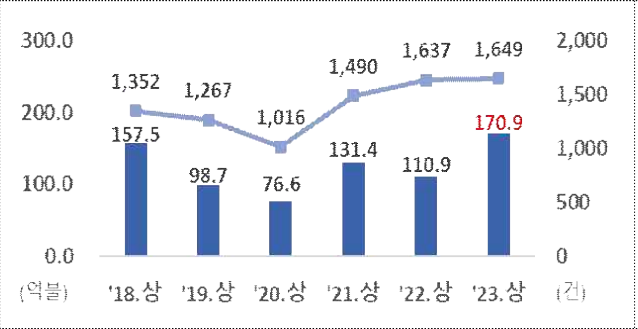
* 도착금액 역대 3위 / 종전 최대실적 : '18년 상반기 신고 157.7억불, 도착 103.1억불

○ (건수) 신고 1,649건(+0.7%), 도착 1,173건(△7.2%) 기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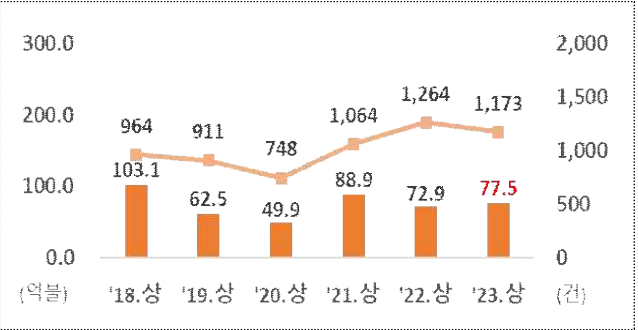
< 연도별 FDI 금액(단위 : 억불) >

구분	'23년 상반기	(전년比)	'22년 상반기	'21년 상반기	5년 평균 ('18~'22)
신고	170.9	+54.2%	110.9	131.4	115.0
도착	77.5	+ 6.3%	72.9	88.9	75.4

< 연도별 신고금액·건수 >



< 연도별 도착금액·건수 >



□ **(평가) 4분기**('22년 3분기~'23년 상반기) **연속**으로 **역대 최대 실적 달성**

○ 주요국 긴축정책, 고금리 지속, 美·中 기술패권경쟁 등 불확실성으로 인한 **글로벌 외투 위축**에도 불구하고 **국내 외투는 꾸준한 상승세** 유지

* '22년 글로벌 FDI는 전년대비 24% 감소한 1.29조불 기록 (OECD, '23.4월)

○ **대통령이 해외 순방**을 통해 유치한 성과와 **강력한 정부 지원책*** 및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**규제 혁신** 등 **기업친화적 정책도 큰 역할**

* △국가전략기술 설비투자 세액공제 확대, △외국인근로자 소득세 단일세율 적용 기간 확대(5년 → 20년), △첨단전략기술 관련 외국인투자 현금지원 최대한도(50%) 적용 등

○ **미국·EU**로부터 **첨단 제조업**, **에너지 신산업** 분야 **대형 투자가 다수 유입**되는 등 **첨단산업의 전략적 투자거점**으로서 **한국의 매력도 상승**

Ⅱ. 세부 동향(업종별·국가별·유형별·자금별·지역별) ※ 신고 기준

1. 업종별

□ **(금액) 제조업**(76.3억불, +145.9%, 비중 44%), **서비스업**(84.8억불, +11.0%, 비중 50%), **기타업종**(9.8억불, +186.6%, 비중 6%)은 **모두 증가**

* 기타업종 : 1차 산업(농·축·수산·광업), 전기가스·수도·환경정화업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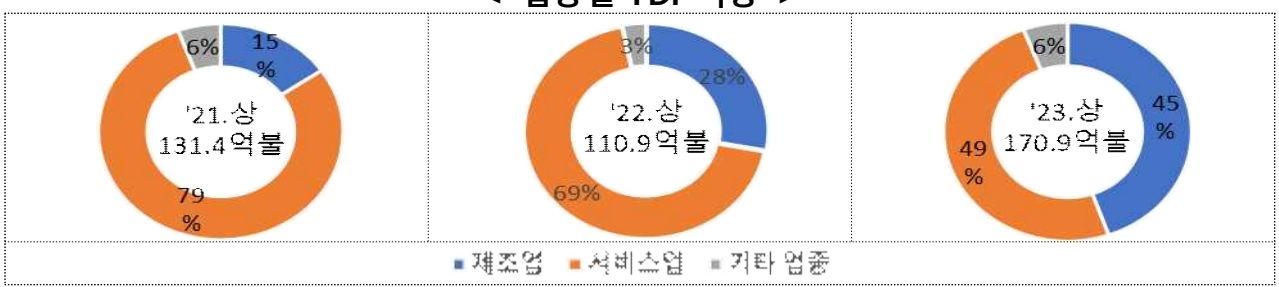
< 업종별 신고금액 (단위 : 백만불) **>**



< 업종별 신고건수 (단위 : 건) **>**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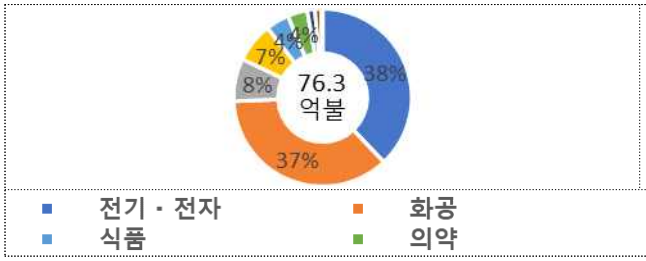
< 업종별 FDI 비중 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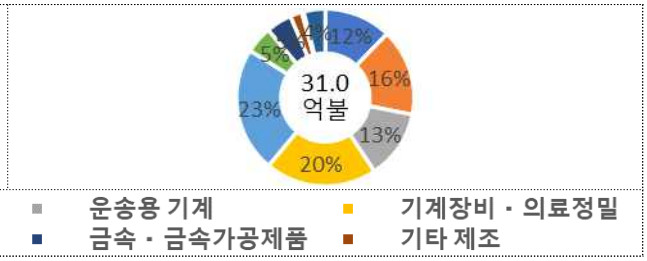
○ **(제조업) 76.3억불**(전년동기比 +145.9%, 비중 44%)

* 주요 투자사례 : A社(전기·전자), B社(화공), C社(화공), D社(전기·전자), E社(전기·전자), F社(의약)

< '23년 신고금액 >



< '22년 신고금액 >



- **(증가업종) 전기·전자**(+663.0%), **화공**(+464.1%), **의약**(+78.3%) 등

- **(감소업종) 섬유·직물·의류**(△100%), **식품**(△54.1%), **금속·금속가공제품**(△27.6%), **기계장비·의료정밀**(△13.2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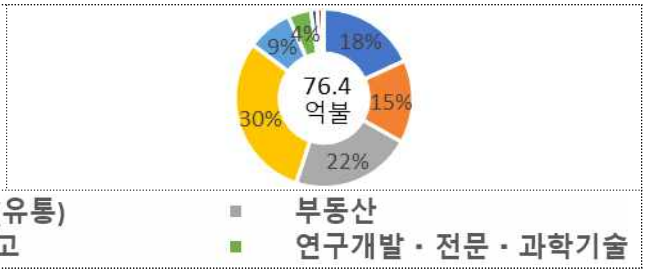
○ **(서비스업) 84.8억불**(전년동기比 +11.0%, 비중 50%)

* 주요 투자사례 : G社(금융·보험), H社(금융·보험), I社(정보통신), J社(금융·보험)

< '23년 신고금액 >



< '22년 신고금액 >



- **(증가업종) 사업지원·임대**(+447.3%), **숙박·음식점**(+250.6%), **금융·보험**(+185.5%), **도·소매**(+19.0%) 등

- **(감소업종) 정보통신**(△65.4%), **부동산**(△35.3%), **운수·창고**(△17.0%)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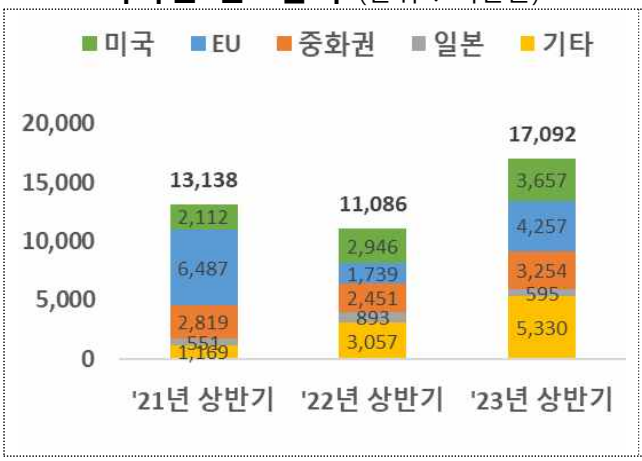
□ **(건수) 제조업**(220건, +11.7%)은 **증가**, **서비스업**(1,345건, △0.7%)·**기타업종**(84건, △2.3%)은 **전년동기 대비 감소**

2. 국가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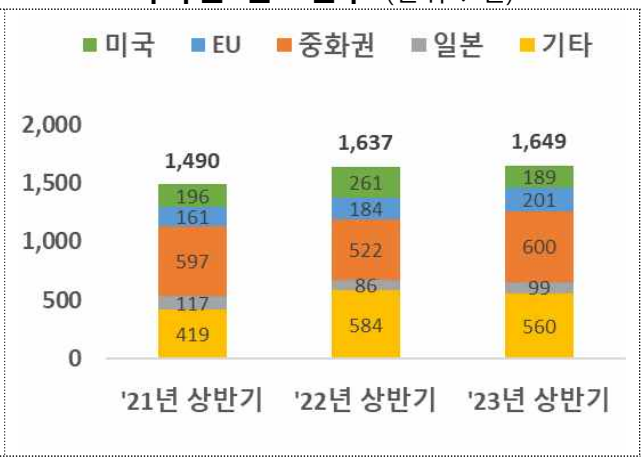
* EU : 영국 포함 / 중화권 : 중국·홍콩·대만·말레이시아·싱가포르

□ (금액) **EU**(42.6억불, +144.8%, 비중 25%), **미국**(36.6억불, +24.1%, 비중 21%), **중화권**(32.5억불, +32.8%, 비중 19%), **기타 국가**(53.3억불, +74.3%, 비중 31%)는 **증가**, **일본**(6.0억불, △33.4%, 비중 4%)은 **감소**

< 국가별 신고금액 (단위 : 백만불) **>**



< 국가별 신고건수 (단위 : 건) **>**



○ (미국) **36.6억불**(전년동기比 +24.1%, 비중 21%)

* 주요 투자사례 : B社(화공), D社(전기·전자), K社(전기·전자)

- (업종별) **제조업**(21.7억불, +835.9%) **증가**, **서비스업**(14.9억불, △44.1%) **감소**
- (유형별) **그린필드**(35.4억불, +31.2%) **증가**, **M&A**(1.1억불, △54.0%) **감소**

○ (EU) **42.6불**(전년동기比 +144.8%, 비중 25%)

* 주요 투자사례 : G社(금융·보험), C社(화공), L社(전기가스), M社(기계장비)

- (업종별) **제조업**(20.5억불, +618.0%), **서비스업**(16.9억불, +32.9%) **모두 증가**
- (유형별) **그린필드**(19.5억불, +129.3%), **M&A**(23.1억불, +159.5%) **모두 증가**

○ (중화권) **32.5억불**(전년동기比 +32.8%, 비중 19%)

* 주요 투자사례 : N社(도·소매), J社(금융·보험), F社(의약)

- (업종별) **제조업**(12.4억불, +80.0%), **서비스업**(19.8억불, +19.9%) **모두 증가**
- (유형별) **그린필드**(31.1억불, +60.8%) **증가**, **M&A**(1.5억불, △71.6%) **감소**

○ (일본) 6.0억불(전년동기比 △33.4%, 비중 4%)

* 주요 투자사례 : O社(화공), P社(정보통신), Q社(숙박·음식점)

- (업종별) 제조업(3.2억불, △14.5%), 서비스업(2.7억불, △48.1%) 모두 감소

- (유형별) 그린필드(5.3억불, △8.0%), M&A(0.6억불, △79.8%) 모두 감소

○ (기타 국가) 53.3억불(전년동기比 +74.3%, 비중 31.2%)

* 주요 투자사례 : H社(금융·보험), A社(전기·전자), E社(전기·전자), I社(정보통신)

- (업종별) 제조업(18.5억불, +21.7%), 서비스업(30.5억불, +98.7%) 모두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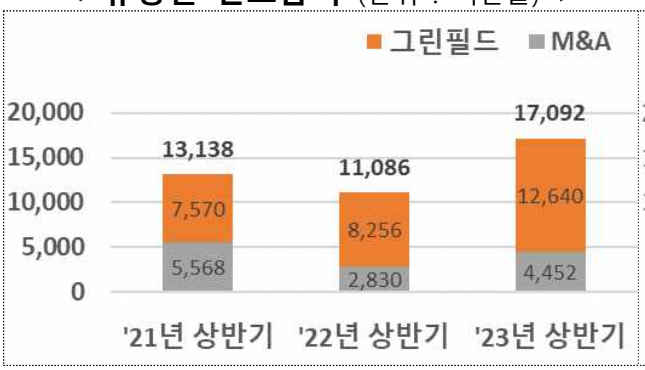
- (유형별) 그린필드(35.1억불, △15.1%), M&A(18.2억불, △36.7%) 모두 감소

□ (건수) 중화권(600건, +14.9%), EU(201건, +9.2%), 일본(99건, +15.1%)은 증가, 미국(189건, △27.6%), 기타 국가(560건, △4.1%)는 감소

3. 유형별

□ (금액) 그린필드(126.4억불, +53.1%, 비중 74%), M&A(44.5억불, +57.3%, 비중 26%) 모두 증가

< 유형별 신고금액 (단위 : 백만불) >



< 유형별 신고건수 (단위 : 건) >



○ (그린필드) 126.4억불(전년동기比 +53.1%)로, 제조업(63.7억불, +152.9%) 증가, 서비스업(53.9억불, △0.1%) 감소

* 주요 투자사례 : A社(전기·전자), B社(화공), N社(도·소매), D社(전기·전자)

○ **(M&A) 44.5억불**(전년동기比 +57.3%)로, **제조업**(12.6억불, +115.5%), **서비스업**(30.9억불, +37.7%) **모두 증가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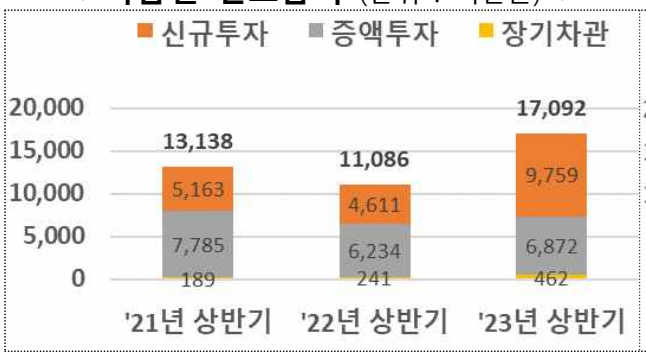
* 주요 투자사례 : G社(금융·보험), H社(금융·보험), C社(화공)

□ **(건수) 그린필드**(1,515건, +2.3%) **증가**, **M&A**(134건, △14.1%) **감소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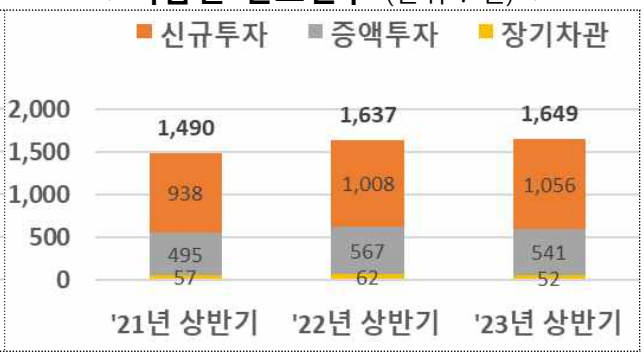
4. 자금별

□ **(금액) 신규투자**(97.6억불, +111.6%, 비중 57%), **증액투자**(68.7억불, +10.2%, 비중 40%) 및 **장기차관**(4.6억불, +91.5%, 비중 3%) **모두 증가**

< 자금별 신고금액 (단위 : 백만불) **>**



< 자금별 신고건수 (단위 : 건) **>**



○ **(신규투자) 97.6억불**(전년동기比 +111.6%)로 **제조업**(36.7억불, +165.0%)과 **서비스업**(55.1억불, +85.4%) **모두 증가**

* 주요 투자사례 : G社(금융·보험), H社(금융·보험), C社(화공), A社(전기·전자)

○ **(증액투자) 68.7억불**(전년동기比 +10.2%)로 **제조업**(36.8억불, +119.8%) **증가**, **서비스업**(27.9억불, △37.6%) **감소**

* 주요 투자사례 : B社(화공), A社(전기·전자), N社(도·소매), D社(전기·전자), E社(전기·전자)

○ **(장기차관) 4.6억불**(전년동기比 +91.5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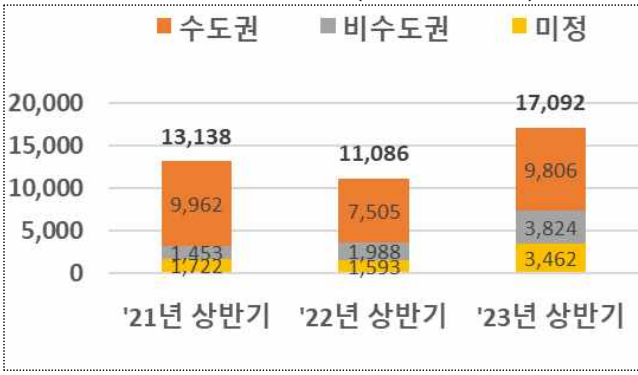
□ **(건수) 신규투자**(1,056건, +4.8%) **증가**, **증액투자**(541건, △4.6%), **장기차관**(52건, △16.1%) **감소**

5. 지역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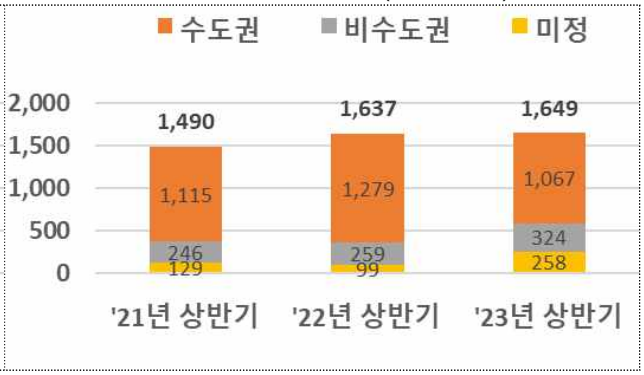
* 수도권 : 서울특별시, 인천광역시, 경기도 / 비수도권 : 이외 14개 시·도

□ (금액) **수도권**(98.1억불, +30.7%, 비중 57%), **비수도권**(38.2억불, +92.3%, 비중 22%) **모두 증가**

< **지역별 신고금액** (단위 : 백만불) >



< **지역별 신고건수** (단위 : 건) >



○ **(수도권) 98.1억불**(전년동기比 +30.7%), **제조업**(32.1억불, +187.7%)과 **서비스업**(63.3억불, +2.0%) **모두 증가**

* 서울(70.5억불, +46.7%), 인천(2.8억불, △32.7%), 경기(24.8억불, +8.5%)

○ **(비수도권) 38.2억불**(전년동기比 +92.3%)로 **제조업**(29.2억불, +156.7 %)은 **증가**한 반면 **서비스업**(7.3억불, △12.3%)은 **감소**

* 증가 시·도 : 경북(9.56억불, +290.3%), 전북(8.60억불, +742.2%), 경남(3.80억불, +2,664.9%), 광주(3.73억불, +1,780.46%), 대전(3.07억불, +2,272.0%), 충남(2.04억불, +165.3%), 전남(1.68억불, +104.0%), 울산(1.49억불, +1,232.6%), 충북(0.93억불, +119.5%), 세종(0.79억불, +2,165.4%), 강원(0.28억불, +264.6%), 대구(0.17억불, +1,797.6%)

* 감소 시·도 : 부산(1.68억불, △48.8%), 제주(0.42억불, △95.9%),

□ (건수) **수도권**(1,067건, △16.6%) **감소**, **비수도권**(324건, +25.1%) **증가**

Ⅲ. 2023년 상반기 주요 외투 주요 사례(2억불 이상 상위 22개사)

구분	투자기업	금 액 (억불)	업종	유형	주요 내용
계		106.6		그린필드 : 69.4억불 M&A : 37.2억불	
1	○○社	10억불 이상	서비스 (금융·보험)	M&A(10.5) 그린필드	보안기업 지분인수
2	○○社		서비스 (금융·보험)	M&A	블라인드 PEF
3	○○社		제조 (전기·전자)	그린필드	이차전지 생산공장 확장
4	○○社		제조 (화공)	그린필드	암모니아·수소 터미널, 크래킹시설
5	○○社	10억불 미만~ 5억불 이상	제조 (화공)	M&A	산업용특수가스기업 지분인수
6	○○社		서비스 (도·소매)	그린필드	이차전지 전구체 생산시설
7	○○社	5억불 미만 ~ 2억불 이상	서비스 (금융·보험)	M&A	블라인드 PEF
8	○○社		제조 (전기·전자)	그린필드	수소 사업 확장·고도화
9	○○社		제조 (전기·전자)	그린필드	반도체 패키징 시설
10	○○社		서비스 (정보통신)	그린필드	콘텐츠 제작·유통
11	○○社		전기수도	그린필드	해상풍력 발전단지
12	○○社		서비스 (금융·보험)	그린필드	전자상거래기업 인수
13	○○社		제조 (운송용 기계)	그린필드	조선해양기업 지분인수
14	○○社		서비스 (부동산)	그린필드	부동산 투자
15	○○社		제조 (기계장비)	그린필드	풍력터빈 핵심부품 생산시설
16	○○社		제조 (식품)	그린필드	감미료 생산시설
17	○○社		제조 (의약)	그린필드	바이오 원부자재 생산시설
18	○○社		제조 (화공)	M&A	화장품 제조기업 지분인수
19	○○社		제조 (전기·전자)	그린필드	이차전지 전도성 첨가제 생산시설
20	○○社		제조 (화공)	그린필드	화장품·의료용품 생산시설
21	○○社		제조 (전기·전자)	그린필드	전력용 반도체 생산시설
22	○○社		전기수도	그린필드	해상풍력 발전단지